

전남매일

## 전형적 영웅들에 반기 드는 '슈퍼 히어로'

오지현 기자 | 2020. 07. 27

한국문화예술위, 청년작가 작품 중심 주제기획전

새로운 영웅 제시...현 시대 위기 대처 방법 고민도



우한나 작가의 '파자마 파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황민규 작가의 'Star gazing'/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인사미술공간 주제기획전 ‘슈퍼 히어로(Super Hero)’의 관람을 재개한다.

위기의 시대에 구세주처럼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백인 남성 중심적인 ‘영웅주의’의 판타지를 뒤집고 비트는 이번 전시는 새로운 영웅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그려낸다.

‘슈퍼 히어로’에 참여한 작가들은 80~90년대 출생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김한샘, 우한나, 황민규 작가의 구·신작이 함께 전시됐다.

전시장 1층은 우한나 작가의 신작 ‘파자마 파티’가 펼쳐진다. 우 작가는 주인공이 사라진 무대를 제작해 기존의 남성 중심적 영웅서사에 반기를 들고 광기에 찬 어린 여성들을 비추며 새로운 히어로를 구축한다.

2층 입구에는 황민규 작가의 ‘스타 게이징(Star gazing)’영상이 서막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상영되며, 위기의 메타포로서 활용된다. 신작 ‘야생 속으로’는 유사 이래 최대 위기에 닥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화자를 보여주며 실제 없는 영웅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한다.

김한샘 작가는 19세기 말 영국의 한 마술 교단이 구성했던 ‘4대 천사의 소환마술’을 소개하며, 작가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영웅을 소환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들은 위기의 시대 ‘슈퍼 히어로’의 전형성에 의심을 품고, 기존 영웅 서사에 함몰되지 않은 새로운 영웅 탄생을 기대하며 현 시대의 위기 대처 방법을 고민한다.

전시는 내달 22일까지며,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도 진행해 전시 이전과 이후의 창작 활동 및 작업 방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안전을 위해 단체 관람은 받지 않으며, 방역수치를 준수하기 위해 시간당 입장 인원수도 제한한다. 정기적인 특별 방역과 상시 개별 소독도 진행하며 관람객들 또한 사이사이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95810079303869115>)